

예술과 소통하는 삶의 순간

이 은 선*

정 경(2013), 『예술상인-장터로 뛰어든 예술가 이야기』(서울: 영혼의날개).

예술이란 무엇인가? 정의내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예술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소통 수단으로 누군가가 내게 질문을 한다면 예술은 대중과 소통하는 것이며, 개인적인 내면화를 통한 사고라고 이야기 할 것이다. 예술은 어느 시대, 어떤 문화권에서도 늘 사람들과 함께했고, 하고 있으며, 할 것이다.

톨스토이(Lev Nikolaevich Tolstoy, 1829~1910년)는 예술에 대해 개개인 인간 및 인류의 생활과 행복에의 발걸음에 없어서는 안 될 인간 상호간의 교류 수단이요, 모든 사람을 동일한 감정으로 통일하는 수단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람은 예술에 의해 타인의 감정에 감염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감정 세계에서 그 이전의 인류가 경험한 일을 모두 이해할 수가 있고, 동시대 사람들이 경험한 감정이나 천 년 전의 타인이 맛본 느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자기의 느낌을 타인에게 전할 수도 있는 것¹⁾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술을 가까우면서도 어렵게 느끼고 있으며, 순수 예술에 대해서는 대중과 섞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다. 뮤지컬이나 영화를 안본 사람은 없어도 무용공연이나 클래식음악회를 가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많다. 왜 순수예술문화는 대중예술문화보다 매력적이지 않은 것인가? 안무가와 교육가로 활동하고 있는 나는 대중과 소통하며, 움직이는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사람으로 늘 이 질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예술상인-장터로 뛰어든 예술가 이야기』은 ‘클래식의 이단아’이자 오페라마(Operama)²⁾의 창시자, 스스로 광대라 칭하는 정경교수의 책으로 예술가와 경영자가 보는 시각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작품 활동에서 보여주는 오페라마의 방향성, 대중의 사랑을 받은 고전 예술가들을 통해 얻게 되는 예술상인 정신, 예술적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로서 반성과 도전 새 희망을 보게 될 것이다.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강사, aurora32@khu.ac.kr

1) L. 톨스토이(1897),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철(역)(서울: 범우사, 1998).

2) 오페라로 대표되는 고전 예술의 철학과 드라마로 대표되는 현대 문화의 다양성이 함께하는 새로운 예술문화장르이다.

오페라마,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다

저자는 이탈리아에서 비롯된 정통 오페라를 필두로 한 과거의 모든 고전을 상징하는 오페라(Opera)와 미국에서 탄생하여 현대 문화 흐름의 선봉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드라마(Drama)의 어순과 음절을 부분적으로 취하여 오페라마를 탄생시켰다.³⁾

예술은 경이롭지만 대중예술처럼 편한 마음으로 다가 가기는 쉽지 않다. 수백 년 전의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고전작품은 고귀하고 아름답지만 때론 오늘날의 정서와 맞지 않아 관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저자는 예술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순간부터 현대인의 삶을 보다 온전히 표현하고 담아내어 그들과 공감하고 감동으로 어루어 만질 수 있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싶었기에 새로운 융합장르 오페라마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다. 예술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많은 시간 인내와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열심히 스펙을 쌓고 살아와도 설 무대가 없다. 그러나 시대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며 포기하기 보다는 예술혼을 발휘하여 새로운 가치와 작품을 창조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페라마는 현실에서 직접 느끼게 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예를 들어, 오페라마 작품인 〈코피노: Kopino〉에서는 그간 가려져있던 한국인의 부끄러운 자화상에 대해 비판하고 정체성에 대해 고뇌하는 코피노들의 삶의 고뇌를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했다. 또 다른 오페라마의 콘텐츠인 대학로 상설공연 〈정신 나간 작곡가와 Kiss 하다〉에서는 고전 작곡가의 예술 세계 속에서 현실의 다양한 이야기를 녹아내는 토크 콘서트이다. 이 공연에서는 새 예술가를 소개하는 코너와 프로젝트형 창작곡을 선보이며 다양한 시각으로 관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예술가로 살아가는 현실이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려하는 저자의 도전정신이 느껴진다.

예술, 경영가로서의 시작

예술을 돈의 가치로 보는 것은 논란이 많다. 배고픈 예술가라는 말이 별칭처럼 불리 우는 예술가들에게는 예술경영이라는 단어가 생겼을 당시나, 지금의 현실이나 예술과 돈을 연결시키는 것은 예술가의 순수성과 떨어져 속물 같은 느낌이 드는 아주 불편한 현실이다. 물론 재능기부를 요구하는 상황도 그리 편하지는 않다. 예술상인이란 무엇인가? 예술과 상업 결코 공존하기에는 어색하고 낯설어 보이지만 저자가 말하고 있는 예술상인은 예술작품을 일반적인 상품개념에 적용하는 경제 원리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가공, 유통을 통해 세상에 풀어놓는 전문가로 보고 있다.

최근 칸영화제에서 상을 휩쓸며 한국영화의 역사를 새롭게 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여파로 전 세계인들은 작품 장면 장면에 등장한 상품과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졌으며, K-pop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BTS가 한 무대에서 한국의 부채춤을 선보이자 전 세계인들은 한국무용의 매력에 매료되어 한국문화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엄청난 파워이다.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순수예술문화는 대중예술문화처럼 왜 매력적이지 않은가? 첫째, 볼 기회가 많지 않고 둘째,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셋째, 특별한 사람만이 할 것 같은 편견, 불편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소통의 창구가 없다는 것이다.

3) 정경(2013), 『예술상인-장터로 뛰어든 예술가 이야기』(서울: 영혼의날개).

저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에서 신속한 반응력, 다양한 기술의 도입, 예술콘텐츠의 상품화, 향유층의 확대를 위한 교육 및 정책 개선 등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예술상인이 되기 위해서 예술가들이 다음과 같은 경영학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예술적 순수성과 성장 동력인 금전 사이의 균형을 찾아라. 둘째, 무대 위에서의 실연 뿐만 아니라 전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대, 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중에게 보다 좋은 작품을 더 좋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라. 셋째,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내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길 줄 아는 상인 정신을 도입해라 넷째, 자본주의 요소와 예술이 만났을 때 예술의 순수성이 퇴화하고 왜곡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라 다섯째, 자신의 작품에 대한 피드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옳다고 믿는 예술적 가치와 기준을 추구하라

고전에서 배우는 예술상인 정신

고전의 인물들을 통해 예술상인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 많은 예술가와 철학자들이 예술상인의 정신을 가지고 그 시대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우리는 이러한 고전의 인물들을 통해 예술과 상업이 서로를 존중하는 예술상인의 유토피아를 지향해야 한다.

첫째, 신념이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표현을 남기며 무지의 상태를 계몽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소크라테스(Socrates, B.C. 470년 경~B.C. 399년 경)는 주변의 어떠한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건 꾀넘치 않고 세상을 향해 자신이 믿는 바를 외칠 수 있는 신념의 사람이다. 이 신념이 우리가 배울 정신이다.

둘째, 공존과 조화 속에서 초시대적인 시야를 가져라. 퇴계 이황과 함께 성리학의 기틀을 닦은 율곡 이이(李珣, 1536~1584)는 격한 경쟁과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학문과 신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자경문(自警文)을 짓고 봉당 간의 대립 구도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정신을 배워 우리는 고전과 현대,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어느 한쪽만 지향하지 말고 초시대적인 시야를 가져야 한다.

셋째, 새로운 그 무엇에도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조선말기 3대 화가 중 한 명으로 꼽힌 장승업(張承業, 1843~1897)은 화가로서 입지와 기반을 다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작품을 그리기 위해 새로운 화풍과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신진 회화기교를 받아들이고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연구하면서 개성적인 화품을 창시한 사람이다.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고 배우는 것이 예술상인의 정신이다.

넷째, 대중과의 융화력이다. ‘라 토스카’, ‘나비부인’, ‘라 보엠’의 작곡가인 자코모 푸치니(Giacomo Puccini, 1858~1924)는 서민들이 쉽게 공감하도록 용이한 내용과 가사로 작품을 구성하였고, 그들의 삶을 표현하려고 했다. 우리는 대중과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을 간구하여 작품 활동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신을 철저히 비판하고 이를 디딤돌 삼아 새롭고 독창적인 영역을 구축해라. ‘논리철학논고’의 저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Ludwig Josef Johann Wittgenstein, 1889~1951)은 지속적인 자기 비판과정을 걸쳐 ‘확실성에 관하여’를 남기며 새롭고 독창적인 철학의 영역을 구축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떠한 비평이나 관객보다 더 매섭게 비판하고 자신만의 예술영역을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장르와 문화권을 자유로이 넘나드는 열린 의식이다. 20세기 최고의 테너 프라시도 도밍고(José Plácido Domingo Embil, 1941~)는 바리톤에서 테너, 다시 바리톤으로 음역의 높낮이를 바꾸면서 주연과 조연을 가리지 않고 다채로운 배역을 소화하며, 장르와 문화권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도전과 정열가득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술의 상품화이다. 20세기 미국의 팝아트의 선구자이자 순수미술과 상업 미술 간의 경계를 뛰어넘은 앤디 워홀(Andy Warhol, 1928~1987년)은 시대를 반영하고 사회비판을 담아내는 상업 미술의 귀재였다.

이 책은 예술가와 경영자가 보는 시각으로 예술이 대중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당위성과 예술상인의 방향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새로운 장르의 개척, 예술가가 상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 고전 예술상인들에게 배워야 할 자세 등 현대를 살아가는 순수예술문화인들이 게 불편한 진실을 통해 도전의 마음을 선사한다. 이는 향유자가 없는 예술로서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역할이 실연자, 교육자, 연구자, 행정가 무엇이든 간에 무용가로서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시대와 함께하고 대중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 참고문헌

- 정경(2013). 『예술상인-장터로 뛰어든 예술가 이야기』. 서울: 영혼의날개.
정경(2015). 『오페라마 시각始覺』. 경기: 도서출판 밀알.
톨스토이, L.(1897).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철(역). 서울: 범우사. 1998.
정경(2012). 『공연예술의 퓨전화 현상과 문화코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